

종합·해설

조직 막후 지원 땀 만만찮은 영향력

민주 단체장 보선후보 확정... 총선 경선판도 영향 순천 노관규·무안 이윤석·강진 국령애 후보 '호재'

민주통합당 4·11총선 후보를 뽑기 위한 전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지난 10일 결정된 기초단체장 보선선거 후보가 총선후보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순천시장·강진군수·무안군수 보궐선거 후보가 미리 결정되면서 12~14일 진행될 민주당 총선후보 경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예산이 분산이라는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기초단체장 후보는 기초단체장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총선 경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인구가 적은 군 단위의 경우 이 같은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군에서는 정치·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인사를 대부분은 기초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해가 얽갈라기 때문에 총선보다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기초단체장 후보의 영향력을 받는 선거인단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지난 10일 경선을 통과한 시장·군수 후보 3명은 모두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막후에서 조직을 동원, 총선후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관측이다. 실제로 순천·곡성 선거구의 경우, 순천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가 된 허정민 전 전남도지사 정부특보는 총선에 나선 세 명의 후보 중 노관규 전 순천시장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허 후보의 선출은 노 후보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무안·신안 선거구도 무안군수 후보가 변수로 등장한 지역, 이 의원은 김철주 전 전남도위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반면 서 전 군수는 다른 후보들과 교감을 가졌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따라서 김 후보의 군수후보 당선 이 의원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대 국령애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 장흥·영암·강진 선거구의 경우도 강진군수 후보 선정이 총선후보 결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선에서 승리한 강진원 군수후보의 지지세력은 총선에서는 김명진 후보를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컷오프에 탈락한 김 후보가 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의 지지세력이 황 후보보다는 국 후보 측을 도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전남지역의 한 총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변수로 등장한 지역, 이 의원은 김철주 전 전남도위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반면 서 전 군수는 다른 후보들과 교감을 가졌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따라서 김 후보의 군수후보 당선 이 의원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대 국령애 후보가 대결하고

내일 경선 주목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통합당 후보 경선이 불꽃을 튀기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 서울로 지역구를 이动了한 김효석, 유선호 의원을 이 동한 김효석, 유선호 의원을 12일부터 공천 티켓 확보를 위한 경선에 돌입, 최종 결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높다.

우선 서울 강서 을 지역구에 진출한 김효석 의원은 광태원 한국 노동경제연구원장, 오훈 강서구청 고문변호사와 3차 대결 구도에 12~13일 모바일 투표, 14일 현장 투표 등의 일정으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3선의 중진으로 정치적 검증이 이뤄진데다 경제통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무난하게 강서 을에 안착, 경선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기에 김 후보 캠프 측에서는 지역구를 떠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 향우회에서 적극 지지에 나서 상생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경선을 준비하면서 고충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잊고 있다"며 "경선과 총선에서 승리, 지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물론 정권재창출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선을 통과하면 본선에서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과 한 관 대결을 펼치게 된다.

서울 중구로 진출한 유선호 의원은 김택수 전 청와대 비서관, 남요원 전 민예총 사무총장, 정호준 중구 지역위원장 등과 4차 구도로 12~13일 모바일 투표, 14일 현장

서울로 간 김효석·유선호 민주당 공천 티켓 잡을까



김효석 유선호

내일 경선 주목

높게 보고 있다.

여기에 김 후보 캠프 측에서는 지역구를 떠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 향우회에서 적극 지지에 나서 상생세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경선을 준비하면서 고충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잊고 있다"며 "경선과 총선에서 승리, 지역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물론 정권재창출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경선을 통과하면 본선에서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과 한 관 대결을 펼치게 된다.

서울 중구로 진출한 유선호 의원은 김택수 전 청와대 비서관, 남요원 전 민예총 사무총장, 정호준 중구 지역위원장 등과 4차 구도로 12~13일 모바일 투표, 14일 현장

투표의 일정으로 경선을 치르고 있다.

유 의원 측에서는 서울 지역구 진출이 비교적 늦었으나 다자 구도로 경선이 치러지면서 3선 중진의 관록으로 경선을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 캠프에서는 그동안 서울 중구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 후보에 대한 호남 향우들의 지지가 집중되면서 상생세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울 중구에 정진석 전 청와대 정부수석의 투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유선진당에서는 'Mr 손소리'로 유명한 조순형 의원을 내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구 을 서대석·이상갑 "야권연대 통합경선하자"

오병윤 후보에 제안

민주통합당 서대석·이상갑 광주 서구 을 경선 후보는 12일 야권연대 단일후보로 결정된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통합 경선을 제안했다.

두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연대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지역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앙당에서 일방적인 나눠먹기 식으로 결정한 이번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방법과 절차 모두 반민주적 결정"이라며 "통합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에게 출신 당을 떠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 후보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들은 오 후보에게 13일 정오까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야권연대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양당 대표가 지난 9일 합의한 내용에서 오 후보가 두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웃고는 있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19대 국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습뉴스

'동료 구속' 침통한 분위기 속 광주 동구의회 임시회 개원

"민주 독점 결과물...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민주통합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발생한 '자살 사건'으로 구의원들이 구속되는 등 홍역을 치른 광주 동구의회가 침통한 분위기 속에 12일 개원했다.

이날 오전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최식에는 전직 동광의 투신과 동료의원 구속을 부른 최근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통합진보당 소속 안병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민주통합당의 독식, 독점권력의 결과물"이라며 민주통합당

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안 의원은 5분 발언을 요청해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에 아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날 오전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개최식에는 전직 동광의 투신과 동료의원 구속을 부른 최근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소속 김동현 의원은 "공공건물에서, 그것도 아이들이 खेल을 뛰고 꿈을 키우는 도서관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타당한 이야기냐"며 "동구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주민을 위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기철 의장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최식은 구속된 남도 의원을 제외한 의원 7명, 유태명 구청장 등 동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거운 분위기 속에 30여분간 진행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식사 제공 받은 19명에 541만원 과태료 폭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통합당 해남·진도·완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 총 54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1월 말께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식물 제공은 2차례에 나눠 이뤄졌으며 첫번째는 개인당 25만원씩, 두번째는 개인당 33만원씩 부과됐다.

과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10배에서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통민주당 창당 선언

한광옥·김덕규 등 舊민주당 주축

민주통합당의 4·11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한광옥 전 의원 등 舊(舊) 민주당 '정통민주당(가칭)'을 창당하고 역시 공천에서 탈락한 수도권의 예비후보 14명으로 구성된 '국민경선쟁취 민주연대'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민주당의 탈당 행렬이 수도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 전 의원은 12일 여의도 국민일

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정통세력과 녹색통일당 세력, 그리고 신진 정치세력이 통합해 국민 화합과 민생복지, 경제민주화, 민족통일을 이룰 정통민주당을 건설하자 한다"며 '정통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 대표를 맡은 한 전 의원과 김덕규 전 국회의장의,

김기석·김충현·이훈평·조재현 전 의원, 이대의 전 민주당 수원팔달 지역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녹색통일당을 창당한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이사장도 합류했다.

한 전 의원은 이날 "스스로 '폐족'이라고 부를 만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노무현세력이 정통대 행세를 하며 정통 민주당세력에 대해 '공천학살'을 자행한 건 역사의 후퇴"라며 "열린우리당으로의 복귀요 노무현시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적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 참 많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종-4738호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사 업 명	(주)해주주택전시관 및 사육신축공사		
사 업 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 지 면 적	2,411.20㎡ (729.39평)		
용 도 지 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 폐 율	59.53%(법정 : 60%)	용 적 율	478.73%(법정 : 480%)
규 모	지하0층 지상9층	최 고 높 이	55.50m
건 축 면 적	1,435.47㎡ (434.23평)	건 축 연 면 적	11,543.18㎡ (3,491.81평)
주 차 대 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부설주차장 : 대지면적 201.3평, 연면적 1,233.4평, 지상3층 철골조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에스컬레이터	상, 하 전용형 에스컬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용 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집회시설 및 업무시설		

층별	면적	평	총고	용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장부가격(감평가)	14,000,000,000원
매매예정가격	12,000,000,000원
현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가능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워터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행 등 최대층고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